SECTOR
UPDATE

2026. 5. 26

산업재팀

한영수 팀장
han.youngsoo@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기계 주간 코멘트

조선기술이 데이터 센터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

- 선가 동향: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와 동일하게 185에서 유지. 하지만 소수점 단위로는 8주 연속 상승 중. 중고선가 지수도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
- 해운 지표: Clarksea 지수(선박 수익 지표)는 이번 주 37,758달러/일로, 직전 주 대비 3.0% 하락. 이번 주에도 유조선 운임 정상화(=하락) 추세가 지속.
- 주간 코멘트 주제: 조선사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진출의 지속 가능성 점검

WHAT'S THE STORY?

조선기술의 데이터 센터 산업 적용 가능성: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 때문

최근 조선기술들이 미국 데이터 센터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 실제로 HD현대그룹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자사 힘센엔진 기반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 해당 엔진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 엔진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Wartsila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한 다수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 최근에는 조선사들의 해양구조물 건조 기술을 활용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의 수주 가능성도 제기.

기존 선박 기술을 데이터 센터 관련 발전 및 전력망에 투자하는 것에는 나름의 장점이 존재. 예를 들면 선박 엔진은 가혹한 환경(해양)에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건설할 경우 송배전 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해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거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 하지만, 상기 장점들이 기존의 방식들(대형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수급, 육상 데이터 센터) 대비 경제적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상용화 사례 역시 아직은 많지 않은 편.

그럼에도 향후 조선사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기회는 확장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력 인프라 공급 속도 때문. 현재 미국은 신규 발전원의 계통 연계에 평균 4~5년이 소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그리드 연결은 이보다 더 긴 5~8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 물론, 조선업도 장기 호황으로 수주잔고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나, 북미 데이터 센터 산업 대비로는 빠른 납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특히, 해양구조물 분야 수주잔고는 상선 대비로는 많지 않은 편. 데이터 센터는 현재 전력 확보, 설계, 건설을 포함한 모든 가치사슬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존재. 반면, 전세계 주요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난 5년 간 CAGR 27%로 성장할 정도로 수요가 강세. 또한 높은 기저에도 향후 3년 간 추가 17%의 성장이 예상. 북미 전력가격도 지속 상승 중. 조선 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 조선업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진출은 모멘텀뿐 아니라 밸류에이션에도 긍정적. 이는 해당 사업 관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조선업체들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주가 Performance

(%)	1M	3M	YTD
HD 한국조선해양	-9.2	-6.0	3.3
HD 현대중공업	6.3	13.0	31.9
삼성중공업	-7.9	0.3	22.1
한화오션	-9.9	-17.4	8.2
HD 현대마린솔루션	1.7	35.2	25.9
HD 현대일렉트릭	8.2	16.7	50.3
HD 현대건설기계	-7.0	16.1	70.6
HD 현대	6.4	-3.7	49.9
두산밥캣	-6.7	3.3	18.0
한국항공우주	-9.9	-5.4	46.8
LIG 넥스원	-6.4	89.2	11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4	0.3	31.8
효성중공업	30.0	52.3	123.5
LS 일렉트릭	44.3	103.6	201.3

▶ Valuation summary

(배, %)	P/B	P/E	ROE
HD 한국조선해양	1.9	9.4	22.4
HD 현대중공업	6.1	24.4	27.9
삼성중공업	5.3	25.1	22.8
한화오션	4.9	25.9	21.1
HD 현대마린솔루션	11.7	30.8	40.2
HD 현대일렉트릭	15.4	41.8	42.5
HD 현대건설기계	1.8	16.1	16.0
HD 현대	1.8	8.7	22.8
두산밥캣	0.9	11.8	7.5
한국항공우주	7.8	45.3	18.4
LIG 넥스원	11.6	49.9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7	30.8	nm
효성중공업	12.1	47.8	28.7
LS 일렉트릭	17.0	81.5	22.7

참고: 2026년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산업 뉴스

Qatar Energy, '선주사들에게' LNG선 용선계약 개시 시점 연기 요구: 외신 보도에 따르면 Qatar Energy가 '일부 선주사들'에게 장기 용선계약을 위한 선박 인수 시점 연기 조항을 행사. 해당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용선계약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님. 조선사들이 지연 없이 선박을 인도하는 가운데, Qatar Energy가 용선계약을 미룰 경우, 인도된 선박은 단기 재용선 시장에 투입될 가능성 존재. 이는 LNG선 단기 스팟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참고로, 국내 조선사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선주사들로부터 인도지연 혹은 수주 취소 요청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2029~2030년 인도 슬롯을 확보하려는 선박 발주도 지속. 올해 누적 글로벌 LNG선 수주는 이미 전년 연간 수주량을 초과한 상태.

인도,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 추진: 인도정부가 최근 대규모 함대 확장 계획을 공식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해군은 현재 약 140척 수준의 보유 선박을 2035년까지 200척 체제로 확장할 계획. 이에 국내 조선업체와 방산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대두.

HD현대삼호, VLAC 수주: HD현대삼호가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하 VLAC) 6척을 717백만 달러에 수주. 외신에서는 해당 선박의 발주처로 튀르키예의 선사인 Ciner Shipping을 지목. 해당 선박들은 2029년 12월 인도 예정. 해당 수주를 포함하여 HD현대삼호는 올해 현재까지 총 32억 달러의 수주를 확보.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의 47%, 올해 수주 목표의 64%에 해당.

삼성중공업, LNG선 3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LNG선 3척을 754백만 달러에 수주. 해당 선박은 2029년 5월 인도 예정. 이를 포함하여, 동사는 올해 현재까지 47억 달러의 신규수주를 확보.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 목표의 60%이며, 올해 수주 목표의 34%에 해당. 참고로, 해양구조물을 제외한 상선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동사는 작년 연간 수주의 60%, 올해 수주 목표의 76%를 확보.

캐나다 정부의 노후 지상 전력 현대화 사업 추진설 대두: 캐나다 현지 매체는 캐나다 국방부가 노후 전차와 장갑차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해당 매체는 이미 캐나다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행했다고 주장.

천궁II, 추가 수출 가능성 보도: 유럽 방산 전문 매체는, 한국이 카타르 및 쿠웨이트와 천궁II 수출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중동 전쟁으로 현지 국가들의 미사일 비축량이 크게 감소. 미국 역시 추가 미사일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에, 한국의 천궁II에 대한 수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CMMC 인증이 변수로 부상: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11월부터 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이하 CMMC)이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 현재까지 국내 방산 기업 중 해당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 해당 언론에서는 특히 한미 조선협력 프로그램과, 함정 유지보수 프로젝트들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 해당 인증 취득은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 하지만, 현재 조선부문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협력 유인이 강한 편. 또한 국내 조선사들의 현재 수주잔고를 고려하면, 당장 수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2년 내 인도는 쉽지 않은 상황. 즉, 조선업계는 해당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

조선업 주요 지표

	현재	지난 주 대비		2025년 말 대비	
	5월 22일	5월 15일	증감률 (%)	2025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5.0	184.6	0.2	184.7	0.2
벌크선 (Capesize)	75.5	75.5	0.0	75.0	0.7
유조선 (VLCC)	130.5	130.5	0.0	128.0	2.0
유조선 (51,000DWT PC선)	51.0	50.5	1.0	49.0	4.1
컨테이너선 (22,000TEU)	236.0	236.0	0.0	235.0	0.4
컨테이너선 (13,000TEU)	148.0	147.5	0.3	145.5	1.7
LNG선 (174,000m^3)	248.5	248.5	0.0	248.0	0.2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210.0	209.0	0.5	191.1	9.9
벌크선 (Capesize)	71.0	71.0	0.0	66.0	7.6
유조선 (VLCC)	145.0	140.0	3.6	120.0	20.8
유조선 (51,000DWT PC선)	51.0	51.0	0.0	43.0	18.6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33,150	34,000	-2.5	24,850	33.4
벌크선 (Capesize, Non-Eco)	29,700	30,500	-2.6	23,850	24.5
유조선 (VLCC, Eco)	116,750	120,000	-2.7	65,500	78.2
유조선 (VLCC, Non-Eco)	106,500	108,250	-1.6	58,000	83.6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37,758	38,943	-3.0	29,856	26.5
BDI	2,991	3,151	-5.1	1,877	59.4
WS (사우디 기준)	373	403	-7.5	58	547.8
CCFI	1,317	1,280	2.9	1,147	14.9
SCFI	2,218	2,141	3.6	1,656	33.9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2.9	2.9	1.0	4.0	-26.8
유가 (달러/배럴)	100.9	105.4	-4.3	57.4	75.8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546.8	532.3	2.7	262.8	108.1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167.0	150.8	10.8	71.8	132.8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 spot, 천연가스는 Henry Hub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조선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한국조선해양*	0.5	-9.2	-6.0	3.3	1.9	9.4	22.4
HD현대중공업*	5.9	6.3	13.0	31.9	6.1	24.4	27.9
삼성중공업*	1.5	-7.9	0.3	22.1	5.3	25.1	22.8
한화오션*	3.4	-9.9	-17.4	8.2	4.9	25.9	21.1
HD현대마린솔루션*	14.6	1.7	35.2	25.9	11.7	30.8	40.2
Yangzijiang	-4.8	-10.2	1.3	8.6	2.1	8.3	27.4
CSSC Holdings	-5.3	5.3	5.6	15.5	1.8	15.0	12.7
CSSC Offshore	-2.3	-1.9	-16.6	5.4	n/a	27.1	7.6
ST Engineering	8.7	0.2	10.7	33.8	12.0	33.7	37.0
Seatrium	-0.9	-5.5	3.2	3.2	1.0	15.7	6.5
Mitsubishi	-2.7	-12.0	-20.1	3.4	5.1	45.6	11.6
Kawasaki	-2.5	-4.2	-17.1	43.1	3.5	28.7	12.7

참고: 5월 22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기계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현대일렉트릭*	-0.7	8.2	16.7	50.3	15.4	41.8	42.5
HD건설기계*	3.9	-7.0	16.1	70.6	1.8	16.1	16.0
HD현대*	4.4	6.4	-3.7	49.9	1.8	8.7	22.8
두산밥캣*	-2.3	-6.7	3.3	18.0	0.9	11.8	7.5
한국항공우주*	3.8	-9.9	-5.4	46.8	7.8	45.3	18.4
LIG넥스원*	10.7	-6.4	89.2	117.7	11.6	49.9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	-11.4	0.3	31.8	5.7	30.8	nm
효성중공업*	5.9	30.0	52.3	123.5	12.1	47.8	28.7
LS일렉트릭*	7.9	44.3	103.6	201.3	17.0	81.5	22.7
Lockheed Martin	3.3	-4.0	-19.0	10.2	17.3	86.4	21.1
Raytheon	3.4	-2.2	-13.6	-3.5	12.1	17.8	83.4
Siemens	3.5	11.2	9.6	12.3	3.5	25.6	13.7
Caterpillar	-0.9	8.8	15.8	53.6	3.3	25.2	13.5
Komatsu	-3.8	-9.1	-17.3	24.7	18.2	35.9	59.8
Kubota	-7.8	4.6	-11.4	21.8	1.8	16.0	11.2

참고: 5월 22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5월 22일 현재 삼성중공업와(과) 계열사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5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